

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보 도 자 료	보고서명	무형자산의 부상과 생산요소의 배분 효율성
	문의	정희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(02-3771-0625, hcjung@kcmi.re.kr)

- 세계 경제는 공장·설비 등 유형자산 중심에서 지식, 노하우, 조직역량 등 무형자산 중심의 생산구조로 전환
 - 현대 경제에서 무형자산은 기업 경쟁력과 성장의 핵심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, 담보 활용의 어려움과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해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외부자금조달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큼
 - 이러한 금융제약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함으로써 기업 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음
 - 본 연구는 국내 기업 부문을 대상으로 무형자산을 고려한 자원 배분 효율성의 추이와 구조를 분석하고,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

- 기업 수준의 무형자본을 추정·집계한 결과, 1999~2023년 동안 우리 기업 부문의 총 자본스톡에서 무형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.1%에서 36.6%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
 - 특히 무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무형자산 집약 산업군에서 자본스톡의 무형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
 - 이와 함께 해당 산업군이 기업 부문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 역시 최근 들어 확대

- 2003~2023년 동안 우리 기업 부문의 배분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크게 저하된 것으로 추정
 - 자원 배분 효율성의 저하는 해당 기간 중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및 GDP 증가율을 연평균 약 0.7%p 낮춘 것으로 추정

- 이러한 효율성 저하는 주로 무형자산 집약 산업군 내부의 비효율성 심화와 해당 산업군의 경제적 비중 확대라는 산업구조 변화에 기인
- 무형자산 집약 산업군의 비효율성은 주로 한계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자원 과소보유 문제에서 비롯되며, 이러한 현상은 저업력 기업과 비상장기업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남

-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,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형자산 중심 기업의 성장 제약을 완화하고 자원 배분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
 - 무형자산 기반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및 금융중개기관의 역할 강화
 - IP 금융의 기능 강화를 통한 무형자산 중심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 다각화
 - 재무정보가 무형자산 집약 기업의 경제적 실체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개선 노력 지속
 - IP·무형자산 관련 비재무정보 공시 활성화를 통한 정보 비대칭 완화